

# 논콩 재배단지 육성 나선다

## 진안군,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추진... 문스빈·백운농협 2개소 선정

진안군이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 유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인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곳은 농업회사법인(유)문스빈, 백운농협으로 올해는 경영체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개소당 3천만원을 지원한다.

농업회사법인은 논콩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논콩 재배능력을 모집하고 각종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문스빈은 15일 1차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농어촌연구원 전국 연합회장,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농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콩 재배단지 조직화의 중



진안군이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농업회사법인(유)문스빈은 15일 1차 교육을 추진했다.

요성 인지 및 고품질 콩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 등으로 이루어졌다.

농업회사법인 문스빈 문수빈 대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벼 재배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논콩 재배 전문성을 높이고, 많은 농가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논콩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 가공까지 연계한 시설 지원을 위해 2024~2025년 공모도 철저히 준비하여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대기오염 개선 위한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 무주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무주군이 지역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경유 차량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18억9백여만 원을 투입해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장치(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구매 등 총 688대에 대한 저감 사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세부사업을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무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도로용 3중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가 대상이다.

저감 장치 부착사업은 5등급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군민으로 생체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을 하며, 장치 부착차량 의무 운행기간은 2년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로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무주군으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은 무주군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입 시 지원하며,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량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저감 장치 장착 차량 중 의무기간(2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저감 사업 지원 희망자는 오는 24일 까지 무주군청 환경과(063-320-2333)에 신청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보건의료원, 암 예방 교육 실시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에서 실천하는 암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영정호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암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다가오는 암 예방의 날(2023.3.21.)을 맞아 주민들의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암 예방 및 국가 암검진의 중요성을 일깨워 국민 암 예방 수칙

실천을 독려하고자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 교수는 생활에서 실천하는 암 예방 10대 수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생활에서 실천하는 암 예방 10대 수칙으로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

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암 예방을 위해서 술은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암 조기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 장수군, 4월 30일까지 산불 예방 위한 비상대책근무 실시

장수군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2013~2023)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군·읍·면 전직원 1/6 이상 비상대책근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한 사항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당부 내용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 부산

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 것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와 가까운 곳에서 흡연을 하거나 담배 궂초를 버리지 말 것 △화목 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기 △산불을 목격했을 때 즉시 신고하기 등이다.

이성재 산림과장은 "산불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군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의회, 마령면 찾아 주민의견 청취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 13일 마령면사무소에서 약취 등 민원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군의원,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취 민원, 태양광 허가, 지방하천 관리 등 환경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약취문제에 고통을 받아왔으며 무인약취 자동포집기의 24시간 상시포집과 함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의 정기적인 성분검사 실시와 약취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하천 주변에서 사용되는 제조제 및 비료사용에 대해 수질오염 피해를 우려하며 주민 계도를 요구하였고 현재 설치된 태양광에 대해서는 진안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에 의원들은 관계 부서에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규 의장은 "민원 해결을 위한 군의회·관계공무원·지역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배수지 정비 추진

무주군이 군민들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맑고 깨끗한 마을상수도 보급에 나선다. 무주군에 따르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배수지를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주민들에게 청결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군은 다음달 14일까지 각 읍·면 지역에 있는 마을상수도 5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배수지 청소를 실시한다.

물탱크의 물을 비우고 고압세척기로 배수지 바닥과 천장, 벽면을 골고루 세척한 후 침전물과 부유물, 벽면의

부착물질에 대해 브러쉬 등을 이용해 제거와 함께 내부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청소를 마치면 맑고 깨끗한 식수 공급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이 말끔하게 해소될 전망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이무상 소장은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무주 지역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배수지 청소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원예기능사 자격증 취득교육 개강

무주군이 올해 원예기능사 자격증 취득 전문인 양성에 들어갔다. 무주군은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원예기능사 자격증 취득교육 개강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25일까지 하루 4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개강식은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수강생,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원예기능사 자격증은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등의 원예작물을 정식하고, 생육 및 관리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관련되어 있고, 해당 교육은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일정에 맞게 편성했으며, 이론과 실습 등 총 12회의 과정으로 필기와 실기시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농업기술센터 강소농육성 하현진 팀장은 "지난해에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농업인이 희망하는 과정으로 원예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을 개설했다"며 "교육을 통해 채소, 과수, 화훼 등 여러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농업전문가를 양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취약계층 아동 주거환경 개선 나선다

무주군이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운동·방역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봄철 방역에 취약한 드림스타트 대상 2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방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감염병 호흡기 질환, 아토피, 감기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방역소득 서비스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하며, 가구당 월 1회, 총 8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내 환경 개선을 통한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쾌적한 양육환경 조성으로 가족 모두가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관내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일 반해충 박멸과 함께 살균(곰팡이 제거) 소독 등 가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